

2
0
2
1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 수시모집 |

지역균형선발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 정시모집 |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학년도





1978. 02. 21.
처음 세워진 교문

차 | 례

I.

미래의
서울대 학생에게

-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_ p.02
-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해드립니다 _ p.03

II.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_ p.04
- 학생부종합전형이 왜 필요한가요 _ p.04
- 학생부종합전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_ p.05

III.

학생부종합전형
학생 선발 방법

- 서류평가 안내 _ p.06
- 면접 안내 _ p.12

IV.

행복한 학생,
건강한 학교

-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_ p.18
- 학교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_ p.24
- 입학서류 작성은 이렇게 하세요 _ p.26

V.

선배들이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

- 최고의 공부비결? 기본에 충실하자 _ p.34
- 나에게 의미가 있다면 어떤 활동이든 좋다 _ p.36
- 전공 및 진로선택을 위한 고민 _ p.39
- 면접 준비, 함께하면 더욱 좋다 _ p.42
- 학교와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_ p.46
-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고등학교 생활을 즐기자 _ p.48

VI.

미래의 인재를
기다리며

-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해온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_ p.51

-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묻습니다 _ p.52
- 아로리 사용 설명서 _ p.56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

이는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지향점입니다.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은 미래를 개척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융합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
- 학교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
-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서울대학교는 우수한 학업능력과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지닌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리더’나 ‘진취성’이란 단어가 다소 거창하여 구체적인 개념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멀리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미 완성된 인재를 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차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단순히 수능 몇 점 또는 내신 몇 점의 점수만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서울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정량화된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파악합니다.

여러분이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지 꿈을 가져 보십시오.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현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키워온 꿈이 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모든 전형은 우수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각 전형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가 2021학년도에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 수시모집 | 정시모집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선발전형) ·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 ·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 ·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

위 전형 가운데 정시모집 일반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 즉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는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각 전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전형 | 전형 소개 | 전형 요소* |
|----|--------------------------|--|-----------------|
| 수시 | 지역균형 선발전형 | 다양한 지역적,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 서류평가, 면접 |
| | 일반전형 | 학업능력이 우수하고, 모집단위와 관련된 분야에 재능이나 열정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학생의 열정과 재능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모집단위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 서류평가, 면접 및 구술고사 |
| |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I (정원 외 전형) |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지역적, 경제적,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 도전 정신을 통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수한 성취를 이룬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으로 저소득 가구 학생과 농어촌 지역 학생,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지원하는 농생명계열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형입니다. | 서류평가, 면접 |
| 정시 |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II (정원 외 전형) | 장애로 인한 어려움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데 대학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북한이탈주민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 서류평가, 면접 |

* 모집단위에 따라 실기평가 또는 적성·인성면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가능성과 자질은 사람들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정형화된 공식과 기계적인 수치는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모두 보여주지 못합니다. 학생이 속한 환경과 학업 동기, 학업에 대한 의지, 열정, 노력과 같은 요소들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한 종합적인 평가 제도가 바로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 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교육 기반의 평가 방식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000년부터 현재와 같은 종합평가 방식을 준비하여 2002학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학생의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인 평가체계와 평가인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최근 3년 동안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모집인원의 75% 이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왜 필요한가요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종합평가 방식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이 수능과 내신 위주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발전 가능성을 계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바람직한 교육시스템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는 매우 미미한 점수 차에 의해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간단하고 편리한 선발 방법이지만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시대의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선발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식인지는 의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수치의 단순한 합산을 넘어서는 평가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서류에 기반을 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과 성적, 교내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적인 평가 방식의 가장 큰 의의는 각각의 점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잠재력을 더욱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2021학년도를 기점으로 대학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3년 간 이수한 학생들이 진학하게 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이 변화했다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거나 대학 진학을 위한 별도의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가 대학 진학을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앞서 확인했던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모습은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교육목표에 맞는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입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교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원하는 과목이 있다면 관련 영역의 선택 학습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충실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 자원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로 선택을 위한 과목이 충분히 개설되고 원하는 분야를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주어진 여건을 활용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과목인데 소수학생들만 선택해 평가에서 불리할까 두려우시다면 한 번 도전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되는 교육 자원이 부족하고 선택의 기회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제공하느냐 여부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평가요소가 아닙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 교육 중심의 대학 입학전형 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 체제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가 대학 진학을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학생·학부모뿐만 아니라 대학이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서류평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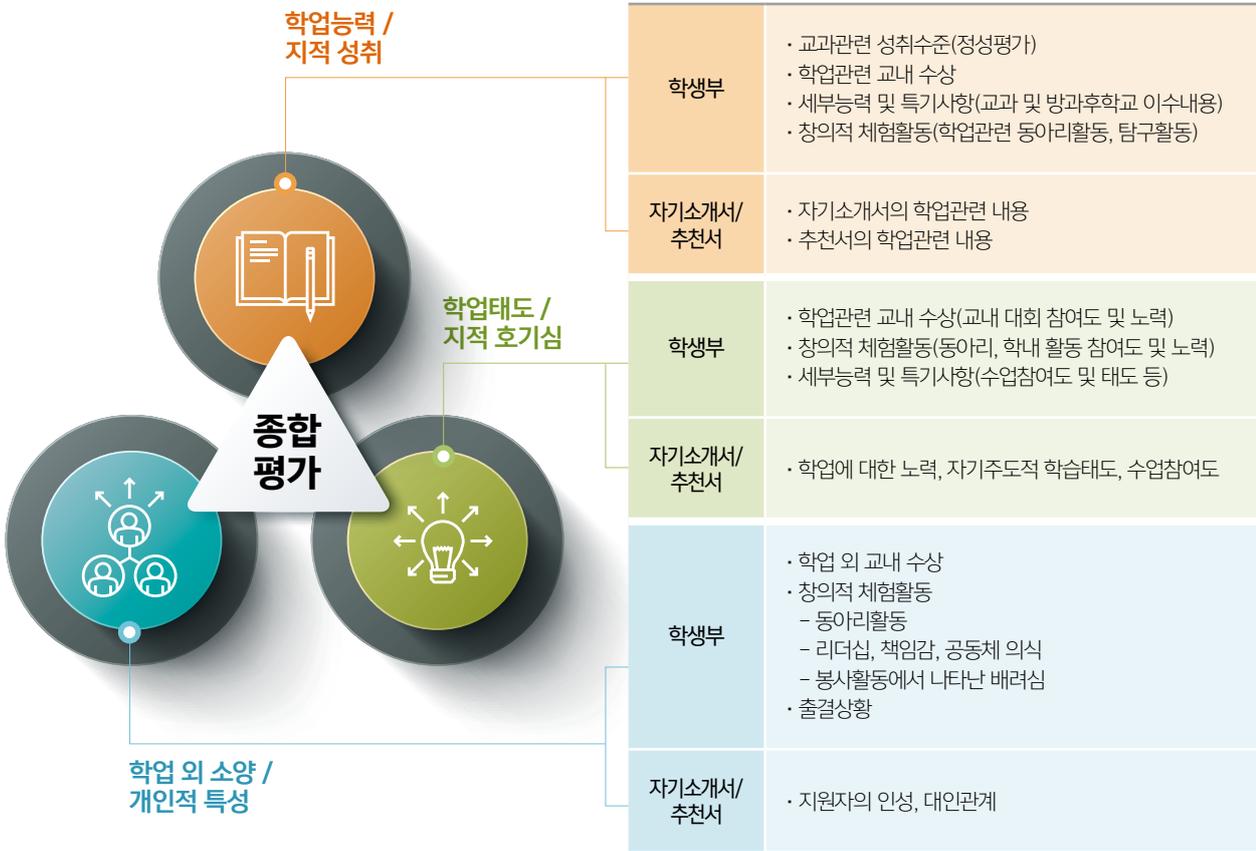
| 서류평가란 무엇인가요 |

서류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첫 번째 단계이며 여러분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서류평가와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에서는 서류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생들을 1차 선발하여 면접 또는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학생이 제출한 서류는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여러 단계의 평가, 협의, 검토를 거쳐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에는 현재 26명의 전임입학사정관과 각 대학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약 110명의 위촉입학사정관이 선발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평가 단계별로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므로 개인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법 |



입학사정관은 서류평가 과정에서 학생의 학업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업태도,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이 때, 한 종류의 서류나 항목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으며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갖춘 학생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수업 참여도와 수업 선택 내역, 학업 관련 학내 활동 참여 노력,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 드러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 제출서류에서 드러나는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의 서류별 반영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특정 부분만을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성취도, 교내 수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등 기재된 모든 내용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기준 |

● 학업능력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지원자의 학업능력,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학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우수한 학업능력**입니다.

학생의 학업능력은 반드시 교과 성적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교과 성적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학업능력은 교과 공부뿐 아니라 교내 탐구활동, 교내 경시대회, 독서활동, 방과후학교,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학업 관련 활동), 학업 관련 탐구활동,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 평가 기준



[교과성취도]

교과 성적 지표는 학생의 학업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많은 자료 중 하나입니다. 교과성취도를 파악할 때에는 교과 성적을 공식으로 수치화하여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이한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에서 얻은 성취를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할 경우, 교과성취도는 지원자의 학업능력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량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학년별/과목별 반영 비율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 교과목의 **3년간의 성취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강자가 300명인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성적과 수강자가 20명인 과목에서 3등급을 받은 성적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학년별 성적 변화, 선택 과목 특성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보를 정성적으로 해석하여 더욱 정확하게 학업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 학년 | 학기 | 과목 | 이수단위 | 등급 | 인원 | 원점수 | 평균 | 표준편차 |
|----|----|-----|------|----|-----|-----|------|------|
| 1 | 1 | 000 | 3 | 1 | 300 | 98 | 71.2 | 15.4 |
| 2 | 2 | 000 | 2 | 3 | 20 | 94 | 89.2 | 4.6 |
| 3 | 1 | 000 | 2 | A | - | - | - | - |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교내수상]

교내 경시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취를 거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내 경시대회는 아래 표와 같이 학교마다 상이하게 시상이 이루어지므로 참가 대상, 인원 등을 파악하고 교육 환경 안에서 수상의 의미를 판단합니다.

| 학교 | 수상명 | 등급(위) | 참가 대상 |
|----|-----|---------|----------------|
| A | 000 | 우수상(5위) | 2학년 중 참가자(52명) |
| B | 000 | 우수상(2위) | 전 학년 대상(536명)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교과별 학습활동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재된 교재나 수업 내용(토론, 발표, 실험 등), 그 안에서 보인 학생의 노력, 과제 수행 내용 등을 통해 학생이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여, 단순히 교과 성적 수치로 볼 수 없는 학생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과학 교과 이론 수업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던 학생이 실험 수업에서 실험 설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우수성이 드러나는 경우, 수학 교과 중에서 유독 통계 부분에 강점을 보이는 경우 등 수치화된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활동, 탐구활동 등의 학내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우수성을 볼 수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농구반'보다 '심화수학반'이 의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 충실히 활동했다면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학업 외 소양 부분에서 그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탐구활동이 가능한 학교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습니다. 따라서 탐구활동 경험의 유무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탐구활동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자신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평가합니다.

[자기소개서, 추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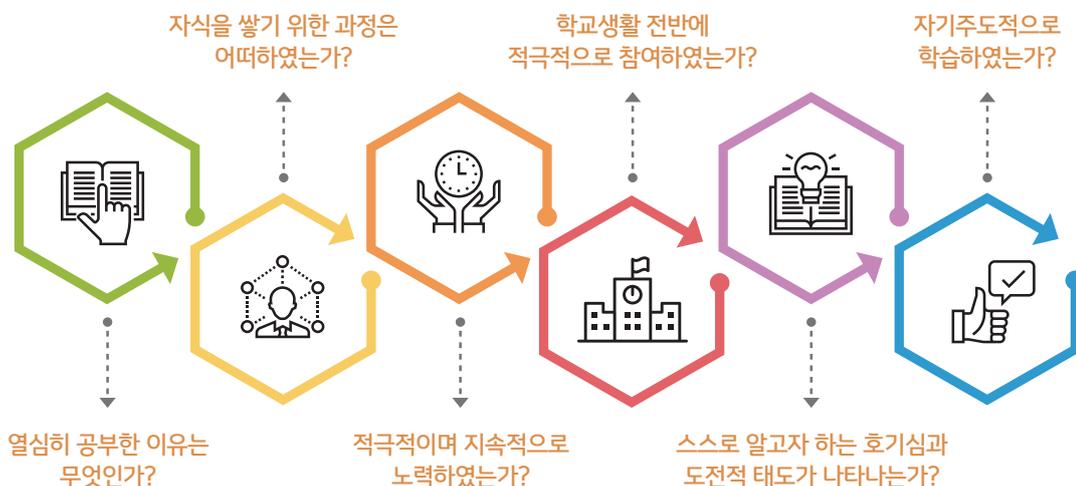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 성적 지표와 교내 경시대회 수상내역, 동아리활동 등이 결과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결과'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천문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한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동아리활동 시간과 활동 내용 등 결과적인 부분이 기술되어 있다면, 자기소개서에서는 천문동아리에 참여하게 된 동기나 동아리 참여 전과 후의 자신의 학업능력과 관련하여 변화된 부분을 기술할 수 있고, 입학사정관은 이 부분에서 학생의 호기심과 학업 역량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학업태도**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 및 진취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이 같은 특성은 교과학습뿐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활동, 글쓰기, 탐구활동, 실험 수업, 교내 대회 참여 등 다양한 학습 경험에서 드러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업 관련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등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학업태도를 보여 왔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서 지원자가 학업 기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도전했던 내용이 보인다면 지원자의 학업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평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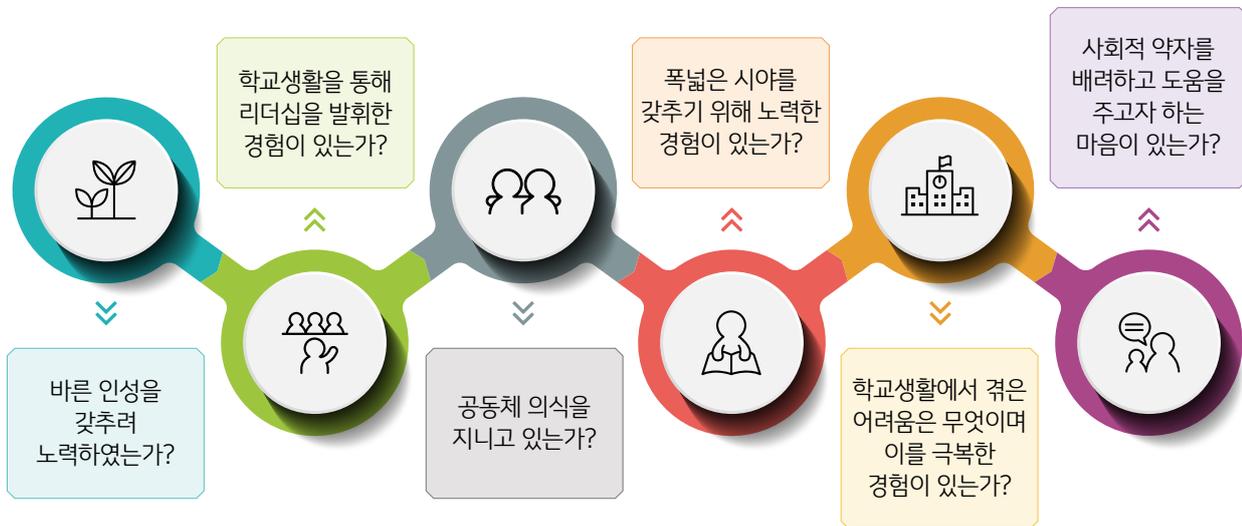


● **학업 외 소양**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에 나타난 지원자의 성품뿐 아니라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업 이외의 교내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리고 제출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통해 학생의 대인관계 및 인성 등 개인적 특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경험의 유무나 활동의 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임원 활동 경력이 많은 학생이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원 활동의 횟수보다 맡은 역할과 활동 내용을 질적으로 판단하며, 봉사활동 역시 봉사활동의 양이 아닌 활동 내용과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기준**



| **다수에 의한 다단계 평가가 무엇인가요?** |

학생부종합전형의 종합평가 방식은 학생의 우수한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서울대학교에서는 한 명의 지원자를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평가**’ 시스템 운영

서울대학교는 충분한 준비과정을 통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다수의 평가자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평가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평가자가 전형 준비에서부터 최종 합격자 선발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평가, 논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각 단계별로 서로 다른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에는 전임입학사정관과 각 단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위촉입학사정관이 참여하며, 5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칩니다.

면접 안내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면접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면접과 제시문을 활용하여 물음에 답하는 면접, 두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 서류 기반 면접 |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과 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지원자 모두와 수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의 면접 대상자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에 응시하게 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복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의 서류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지원자가 이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통해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 등을 확인합니다.

| 평가방법 | 면접 시간 | 평가내용 |
|---------------------------|---|-------------------------------------|
|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 | 10분 내외 (지역균형선발전형 미술대학 디자인과 15분 내외, 의과대학 20분 내외) |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류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평가 |

●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원자는 면접 대기실에 입실을 완료한 후 수험생 확인 및 안내사항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순서에 따라 면접실로 이동하여 서류기반 면접을 진행합니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생의 경험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므로 면접을 위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답변하는 기술과 태도를 측정하는 면접이 아니므로 말투나 태도를 단기간 연습하기보다는 평소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여 깊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담겨있는 본인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되짚어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면접 대비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10분 내외로** 면접위원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하므로 평소 학교에서 토론이나 발표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는 연습이 면접 당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시문 활용 면접** |

수시모집 일반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는 제시문을 활용한 면접 문항이 사용됩니다. 일반전형 1단계 합격자들에게 제시문과 그에 따른 문항이 제공되고 모집단위별 30분/45분 동안 답변을 준비합니다.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의 문항은 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됩니다. 2021학년도 입학전형 안내를 통해 모집단위(단과대학, 학부, 학과 등)별로 평가되는 분야나 과목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모집단위별로 안내된 분야의 제시문과 문항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전공적성과 학업능력**을 평가합니다.

| 평가방법 | 면접 시간 | 평가내용 |
|---------------------------|--|---------------------------------|
|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 | 15분 내외 / 답변준비시간 별도 부여 (30분 또는 45분) (미술대학, 음악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평가시간 상이) |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능력을 평가 |

●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원자는 면접 대기실에 입실을 완료한 후 수험생 확인 및 안내사항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순서에 따라 면접 준비실로 이동하여 제공된 제시문의 답변을 준비합니다. 답변 준비시간이 모두 경과하면 면접실로 이동하여 제시문 기반 면접을 진행합니다.

| 면접 대기실 | | 면접 준비실 | | 면접실 |
|-------------|---|-------------------|---|-----------------|
| 수험생 확인 및 안내 |  이동 | 제시문 제공 및 답변 준비 |  이동 | 제시문 기반 면접 진행 |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모집 단위별 평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 인문대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
|-------------|---|

인문대학의 경우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인문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 제시문이 각각 제공됩니다. 출제되는 제시문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또는 한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30분 내외의 답변 준비시간**에 주어진 두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면접시간은 15분 내외로**, 문항에 대한 답변과 이어지는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면접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답 여부보다는 답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사고력, 논리력** 등이며 **전반적인 학업소양**에 중점을 두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의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1.

201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인문학]

(가) 세상에 백락(伯樂)*이 있는 다음에야 천리마가 있다. 천리마는 항상 있으나 백락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명마(名馬)가 있다 해도, 단지 지체 낮은 일꾼들 손에 모욕이나 당하다가 마구간 구석에서 죽고 말아 천리마로 불리지 못하기도 한다.

말 가운데 천 리를 가는 말은 한 끼에 곡식 한 섬을 먹어야 하는데, 말을 먹이는 자가 천 리를 달릴 수 있는 말인지 모르고 먹인다. 이런 말은 비록 천 리를 가는 능력이 있으나, 먹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힘이 부족하여 그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게다가 보통 말처럼 되고 싶어도 그 또한 불가능하니, 어찌 천 리를 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말을 채찍질하되 천리마에 어울리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먹이되 그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말이 울어도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하면서도, 채찍을 들고 말 앞에 다가가 “천하에 훌륭한 말이 없구나!”라고 한다. 아, 정말로 천리마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천리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가.

*백락(伯樂): 중국 고대에 명마를 잘 감별했던 사람

문제 (가)에는 ‘백락, 천리마, 일꾼, 보통 말’이 언급되어 있다. 여러분이 이 글의 작가라면, 이들 넷으로 비유할 만한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이 글을 읽으라고 권유하겠는가? 넷 중에서 둘 이상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연과학대학 화학부의 경우 화학 관련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며 고등학교 과학 교과 중 화학 II 수준까지의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45분 내외의 답변 준비시간**에 해당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준비한 뒤, **15분 동안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위원들은 정답 여부보다는 지원자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 지식, 깊이, 사고력, 응용력 등을 평가하며 모집단위에서 필요한 소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바로 답변하지 못 하거나, 정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동안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답변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의 예시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2.

201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화학]

문제 과산화 수소(H_2O_2)는 산화력을 지닌 화합물로서 살균 및 표백 효과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보통 수용액 형태로 판매되는 과산화 수소는 시간이 흐르면 물과 산소로 분해된다. 과산화 수소는 생체에서도 발견된다. 활성 산소(ROS, reactive oxygen species)의 일종인 과산화 수소가 만들어지는 환경에서는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는다. 세포 안에서 생성된 과산화 수소는 세포에 손상을 끼칠 수 있지만 카탈레이스 (catalase)라는 효소의 작용으로 분해된다. 대부분의 생물이 지니고 있는 카탈레이스는 과산화 수소를 제거하여 세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산화 수소의 분해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과산화 수소가 2.0M 농도로 녹아 있는 수용액 100mL를 플라스크에 담고 산소만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마개를 씌운 후, 질소로 채워 100atm으로 맞춘 용기 안에 두고 오랜 기간에 걸쳐 내부 압력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기간 동안 용기를 밀폐시키고 온도와 기체의 부피를 각각 27°C와 15L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과산화 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고, 아래 표에서 300일 후의 내부 압력과 그때까지 분해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과산화 수소의 농도를 예상하시오(용액에 녹는 산소의 양은 매우 적다고 가정한다).

| 경과된 시간 (일) | 내부 압력 (atm) | 과산화 수소의 농도 (M) |
|------------|-------------|----------------|
| 0 | 1.00 | 2.0 |
| 100 | 1.08 | 1.0 |
| 200 | 1.12 | |
| 300 | ? | ? |

<시간에 따른 용기 내부 압력 및 과산화 수소의 농도>

공과대학의 경우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이 주어지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됩니다. **45분 내외의 답변 준비시간**에 해당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준비한 뒤, **15분 동안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위원들은 정답 여부보다는 지원자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 지식, 깊이, 사고력, 응용력** 등을 평가하며 **모집단위에서 필요한 소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의 예시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3.

201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수학]

문제 자연수 n 에 대하여 좌표공간 위에 평면 $P_n : x+y+2z = 2n$ 이 주어져 있다.

평면 P_n 과 평면 $x-y-2z = 0$ 이 이루는 교선을 l_1 , 평면 P_n 과 평면 $y-x-2z = 0$ 이 이루는 교선을 l_2 , 평면 P_n 과 xz 평면이 이루는 교선을 l_3 , 평면 P_n 과 yz 평면이 이루는 교선을 l_4 라 하자. 이때 4개의 교선 l_1, l_2, l_3, l_4 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넓이 A_n 의 값을 구하시오.

경영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이 각각 제공됩니다.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출제되는 제시문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또는 한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30분 내외의 답변 준비시간**에 주어진 두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면접시간은 15분 내외로**, 문항에 대한 답변과 이어지는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면접위원들은 정답 여부보다는 지원자가 답변을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 지식, 깊이, 사고력, 응용력** 등을 평가하며 **모집단위에서 필요한 소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바로 답변하지 못 하거나, 정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동안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답변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
| 자유전공학부 | 3가지 유형 중 택1 | · 수학(인문),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 | | · 인문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
| | | ·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지원서 접수 단계에서 3가지 유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 제시문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응시하게 됩니다. 선택 가능한 유형은 위 그림과 같으며, 평가내용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시문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또는 한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30분 내외의 답변 준비시간**에 주어진 두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면접시간은 15분 내외**로, 문항에 대한 답변과 이어지는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그 외 모집단위별로 평가되는 분야와 과목은 2021학년도 입학 전형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대학 및 자유전공학부를 포함한 전체 모집단위의 면접 및 구술고사 문항은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와 웹진 '아로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업역량을 길러온 학생들의 학업 소양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각 교과목 수업을 통해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소화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학습 과정 속에서 관련 도서도 찾아 읽고, 토론, 탐구, 과제 등 학습활동을 하면서 더욱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면접 및 구술고사는 다소 깊이 있는 제시문을 활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독서활동을 성실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기간의 면접 및 구술고사 준비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독서와 각 교과목의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우수한 학업소양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연과학 분야 면접 및 구술고사의 경우도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단순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다뤄보거나 **관련 이론 등에 대한 이해와 응용 연습**을 해 보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깊은 생각이 필요한 문제를 만들어 친구들과 토론 학습을 해 보는 경험, 자연과학 이론이나 관심 주제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 고등학생 수준에서 과제를 해결해보고 발표하는 활동 등도 각 교과목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본인의 학업소양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미래 서울대 학생 여러분! 그럼 서류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고등학교 생활은 대학교 입학만을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사회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거듭날 미래의 '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3년은 내 인생에서 없는 기간이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이 무척 소중한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3년의 시간, 내가 만드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활동, 어떤 공부로 채워나가야 할까요?

도전하는 학생

- 고등학교 생활 중 스스로 도전해 본 경험은 무엇인가요?
- 여러분이 생활해온 공간은 학교, 그리고 그 안의 교실입니다.
- 교실에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에 부딪히게 될까요?

교과 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자

교실에서의 수업,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소화했나요?
내가 선생님이 되어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내용을 이해했나요?
문제풀이 요령보다 내용 이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를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의 점수 올리기라는 쉬운 길보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교실에서의 수업에 도전하세요. 단답형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수준, 오지선다형 시험에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나의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필요하다면 관련 책을 찾아보고 이전에 다뤘던 교과 내용도 참고해 보며 스스로 사고의 폭을 넓혀보는 연습으로 충실하게 지식을 쌓아가세요.

내게 중요한 과목, 진로에 맞는 과목에 더 노력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때 진로계획을 세워 꿈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차 다양한 경험과 계기로 여러분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는 대학생활을 넘어 사회생활에 기초가 되는 교양의 밑거름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식이나 학문을 지나치게 편식하는 것은 지적 균형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과학자! 자연과학적 지식이 풍부한 인문사회학자! 철학과 과학을 아우르는 예술가! 여러분의 멋진 미래입니다.

● 선택의 기회에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자

학교마다 교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교과목이 개설되기도 하고 폐강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 유형에 따라 교과목이 제한적으로 개설되기도 합니다. 반면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이 넓은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선택’, 때로는 이것이 하나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화학이 좋은데... 화학Ⅱ를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화학Ⅱ 희망자가 겨우 30명뿐이라고?
생명과학Ⅱ는 150명이 듣는데?’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 지원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등급의 불리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입학사정관은 교과 등급만으로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과목이라면 많은 인원이 이수하는 과목에 비하여 등급 수치가 우수하게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 나의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과목에 도전하는 자세는 우수한 학업능력을 갖추게 되는 토대가 됩니다. 현재의 나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라면 **어려운 과목, 소수 인원 수강 과목**에도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여 노력**하기 바랍니다.

● 선생님들의 진심과 노고가 깃들여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여러분은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인 서울대학교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입니다.

이러한 지식공동체의 일원인 서울대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보고, 배운 지식을 활용해 보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용 암기와 문제풀이 연습만으로는 여러분의 지식을 확장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업활동에는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나 종류의 활동이라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수업과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활동을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규 수업 안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모두 의미 있는 배움**이며,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발표 수업, 토론 수업, 실험 수업 등 교실에서의 수업 방식이 다채로워졌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실 수업에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경험하면서 흥미로운 분야를 발견하고, 나의 학업 역량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 봅시다. 수업시간에 발표, 토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찾고 연습하는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실험·실습 수업에도 충실히 참여합시다. 교과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탐구 경험을 통해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적성과 흥미도 발견하게 되고, 지적 성장의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많이 내 주신다고요? 각 교과 선생님들이 마치 한 학기에 한 과목만 배우고 있는 것처럼 수행평가 과제를 주신다고요?

미래의 서울대 학생 여러분! 도전의 기회, 적극적인 학교생활, 더욱 알차고 의미 있는 공부의 기회입니다. 놓치지 말아야겠지요? 여러분이 교과수업에서 보여주는 노력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이 되고, 입학사정관은 이곳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수업 활동을 파악하고 역량을 키워온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

-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 교과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 교과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노력이야말로 서울대학교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이런 자기주도적인 학습 노력을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 교과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게 공부하자

학문의 세계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교과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찾아보고 싶은 분야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때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나의 실력과 역량을 한층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서적을 찾아서 읽고, 이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비 학자로서의 면모가 갖춰지지 않을까요?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탐구활동, 모둠 수행 과제, 토론활동, 글쓰기 등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소양과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다양한 교내 대회와 행사도 있습니다. 교내 대회 참여 종류나 횟수, 수상 등급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상 기회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소양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다양한 교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로의 땀과 열정을 나누다보면 여러분의 성장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제공하느냐 여부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평가요소가 아닙니다. 학교마다 제공하는 활동 기회는 여건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업활동에 참여한 활동의 종류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 개개인이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큼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력해왔는지, 어떤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그로부터 개인적으로 얼마큼의 성장을 이루었는지입니다.

● 예비 서울대 학생이라면 독서는 기본입니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며, 대학생활의 기본 소양입니다. 어디서 책을 찾을까요? 수업 안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과와 관련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공학 분야 도서를 수업 활동 중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수도 있고 토론활동, 주제탐구 활동에도 관련 도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미 학교생활에서 도서를 선정하는 계기를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의 책이든지 읽고 또 읽어가는 사이에 생각하는 힘, 글쓰기 능력, 전문지식, 의사소통 능력, 교양이 쌓여갈 것입니다. 타의에 의한 수박 겉핥기식 독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교에는 여러분을 안내하고 이끌어 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 친구들과 모둠활동을 하는데 방향을 잡기 어려워요.
- 우리끼리 해결해가는 방법이 좀 미숙한 듯한데,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이 분야와 관련한 책 좀 소개해 주세요. 더 알아보고 싶어요.
- 이 분야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토론활동을 지켜봐 주세요. 저희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 논술 동아리 글쓰기 작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선생님, 저희 이런 프로젝트 하게 해주세요.
- 과학 실험 동아리 만들었는데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배움을 통한 성장을 위해 펼쳐진 마당입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공부합시다. 공부의 재미와 맛에 푹 빠져봅시다. 아직 그런 맛을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선생님과 상의해보세요.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묻고 도움을 청하고 때로는 귀찮아하실 때까지 매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선생님과 함께 열정을 다해 공부해 온 여러분**을 서울대학교가 기다립니다.

|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학생 |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이라는 뜻 외에도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생활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의 소양은 학업활동 이외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다져집니다. 세계 속의 리더로 성장해가는 예비 서울대 학생 여러분이라면, **열정을 담은 학교생활 속에서 훌륭한 인성을** 갖춰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 학교생활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알아보고 참여하세요

고등학교 생활은 무엇보다도 학업활동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과정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폭넓고, 사려 깊은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학업 외에도 고등학교 생활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운동, 예술, 사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을 보이는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때에 그 열정도 함께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활동을 해야 할까요? 예술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활동의 종류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입학에 특별히 유리한 학업 외 활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학업에 열정을 쏟으면서도 조금 더 폭 넓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든지 협동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 배려심, 대인관계, 사회성을 익히고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조화로운 교우관계를 맺어가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보여주기 식의 활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실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봉사활동의 경우도 가까운 친구,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부터 찾아 실천해 봅시다. 처음부터 진심에서 우러나 실천한 활동도 의미가 있지만, 별 생각 없이 시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 확인서에 의미 없이 채워진 수백 시간의 봉사실적보다 여러분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진심을 다한 활동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가 생각하는 리더십

‘리더십? 난 리더십이 별로 없는데…….’

반장, 부반장 임명장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과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활동, 협동학습 등에서 구성원을 배려하며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경험**은 여러분이 리더의 자질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 수업 중 모둠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 토론활동에서 함께 결론을 이끌어가며 설득력 있게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
- 학교생활 내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동아리활동에서 부원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 모두가 주저할 때 친구들을 독려하여 청소를 주도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장차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갈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입니다. 이러한 자질도 학교 내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통해 경험하고, 길러온 능력은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에 기록되고, 입학사정관은 여러분의 모습이 담겨있는 학교생활에 주목합니다.

학교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 생각하는 수업, 배움의 장 !

• 교실 안에서 학생의 재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학업능력, 자기주도적인 학습 노력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강의 위주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 각자의 개성과 능력, 적성에 따라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과 과제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은 학업활동에 흥미를 느끼며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모두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지적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정규 수업의 충실한 학습활동이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정규 수업 외에도 다양한 학업 관련 동아리 활동이나 탐구활동, 심화학습활동을 학교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지도와 후원에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도 큰 힘과 자극을 얻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이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으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지적 체험을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학교 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서울대학교에서는 **깊이 있는 지적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수업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학생들에게 능력에 맞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어 학습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깊이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활동 하는 모습을 선생님들께서 지켜봐 주세요. 선생님의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 학생들이 한층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알고자 하는 의지가 학교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어떻게 노력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 학업 외 활동도 지원해 주세요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지닌 학생들과 서로 어우러질 때 학생들은 세계 속의 리더로 성장합니다.

고등학교 생활 동안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어울리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리더십, 사회성을 다지는 좋은 연습이 될 것입니다. 재능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등으로 학교 안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생활태도, 올바른 인성, 공동체 의식을 갖춘 학생들**을 기대합니다.

| 학생 중심의 학생부 |

●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겨주세요

같은 교과목의 수업이라도 학교마다 교실마다 수업 내용은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 저마다의 특성과 성장의 모습은 다르게 빛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을 꼼꼼히 읽으며 교실에서 어떤 수업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학생은 어떤 능력을, 어떤 소양을 키우고 발휘해 왔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안에 **학생 개개인의 학습활동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과학습 내용이나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세하고 장황한 내용보다 **학생을 평가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해주세요.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기록을 담아주세요. 학습활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배움의 동기와 과정, 결과와 후속 활동까지 기록된다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추천서를 통해 학생 개인의 학교생활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 과목 수업에 임하는 자세, 수업에서 보인 적극성, 학업소양과 특성 등 선생님들이 보는 그대로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의 관심, 학생의 고민 |

● 학생의 진학과 진로에 관심을 보여주세요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진학과 진로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학생들의 진로와 목표, 가치관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에 대해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노력의 질과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충실히 노력해 간다면 진로가 변한다 해도 그동안 쌓아온 역량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다른 곳이 아닌 학교와 선생님을 의지하며 목표에 따른 고등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교 구성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들은 수업만 담당하고, 진학 담당 선생님들만 진학에 관심을 갖는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교과 담당 교사, 학급 담임 교사 등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항상 학생의 관심과 특성을 공유하여 학생이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진학 상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도해 주세요.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진학 상담을 위해 학원이나 사설 컨설팅에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와 직접 소통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는 분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믿고 담임 선생님과 진학 지도 선생님에게 진학 관련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에 진학 정보실이 마련되어 언제든지 학생들이 찾을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입학서류 작성은 이렇게 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와 더불어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핵심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제출서류를 읽고, 관련 사항을 서로 비교해보며 지원자의 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그동안 여러분이 학교생활에서 열심히 노력해온 모습을 자신의 글로 나타낼 좋은 기회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 중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장 힘들게 또는 신나게 했던 공부 경험, 공부 방법, 느낀 점
-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소중했던 경험
- 열심히 노력해온 일, 많은 시간을 쏟은 일
-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
-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사례 또는 친구와 함께 했던 의미 있는 활동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은 부담을 느끼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자기소개서라고 믿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생 개인의 학교생활 대부분을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나만의 특성**을 자기소개서에 보여주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 모습이 담겨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나만의 모습을 나만의 목소리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나’, ‘나의 노력’에 대해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대학에 지원하는 동기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등학교 기간을 돌이켜 보며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열정을 쏟아왔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봅시다. 내가 노력했던 많은 일들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실만을 나열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느낀 점과 나의 생각을 담아보세요. 어떤 동기와 목적,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왔는지,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는지를 기록해 봅시다.

● 고등학교 기간 중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성장과정을 연대순으로 늘어놓거나 가족관계를 길게 나열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원자의 성격이 형성된 배경 등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가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므로 고등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그대로 나열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수상경력을 단순하게 나열하여 대회명, 수상 일시, 수상 등급 등을 적는데 그치는 지원자가 많습니다. 대학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알 수 없는 지원자의 숨겨진 특성, 자질, 노력 등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특별히 노력한 과정이나, 역량을 쌓기 위해 어떻게 공부하였는지, 왜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는지를 나타내 주기를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세요

자기소개서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특성이나 자질 등을 나타내야 하지만, 이것이 곧 감정적인 내용을 서술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소개서에는 구체적인 경험이나 일화 등을 중심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아주세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균형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의 모습, 나의 생각을 나의 목소리로 담아 주세요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참고하다 보면 나만의 생각이나 나만의 독창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조언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나만의 생각과 문체로 개성을 나타내 보세요.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만의 언어로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이 침묵하여 만들어진 자기소개서로는 학생 본연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 상투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피해 주세요

자기소개서는 남과는 다른 나를 표현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투적인 문구나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문구로는 입학사정관에게 '나'를 표현하고 자신의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수 없습니다. “반장 역할을 잘 해냈다.”, “열심히 하겠다.” 등의 문구로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막연한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경력보다는 임원 활동의 계기나 동기,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 경험, 이를 통해 향후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독서경험을 기술하는 4번 항목에도 ‘자기 생각’을 담아주세요

자기소개서 독서 항목은 지원자의 독서 경험을 통해서 지원자의 생각을 보여주는 자기소개서 안의 또 다른 자기소개서입니다. 따라서 책의 줄거리 요약이나 내용 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던 책을 3권 선정하여 그 책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떤 생각을 하게 하였는지, 또는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등의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선정은 지원하는 모집단위와 관련성이 없어도 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책을 선정하여 경험과 생각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서울대학교에 구체적인 언어로 소개해 주시는 자료가 추천서입니다. 학생들의 고등학교 3년간의 학교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관찰해온 분들이 선생님이며,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선생님입니다.

● 지원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작성해 주세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추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지원자를 관찰해 왔으며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추천서를 작성해야 미사여구만 나열되는 의미 없는 추천서가 되지 않습니다. 유명인사에게 추천서를 받는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자의 성격, 교육 환경, 잠재력,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이 작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 구체적인 학업능력에 대해 담임 선생님이 잘 모르는 경우 교과 담당 선생님께 그간 학생을 관찰한 내용을 전달받아 작성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 수려한 문장보다 내용이 중요해요

추천서는 내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서 작성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기로 유명한 교내 국어선생님이 모든 지원자의 추천서를 검토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추천서는 문장이 수려한 추천서가 아니라 내용이 충실한 추천서입니다. 지원자를 평가할 때 고려할 내용들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추천서를 작성하는 분들은 이를 읽는 입학사정관이 무엇을 궁금해 할지, 어떤 내용을 찾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생활기록부로는 충분히 파악이 어려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이 다시 추천서에서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수상경력을 단순 나열하거나, 교과 성적을 추천서에 다시 강조하여 적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추천서야말로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원자의 숨겨진 특성이나 자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형 자료입니다. 추천서에서는 다른 자료로는 보여줄 수 없는 지원자의 인성, 학업 관련 특성, 장점/단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화를 기술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이 매우 떨어졌을 때 지원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어려운 가정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지원자의 학업능력 평가 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 지원자에 대해 솔직하게 서술해 주세요

추천서에서 지원자에 대해 무작정 칭찬만 나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저히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쓰거나, 봉사와 관련된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학생에 대해 봉사성이 우수하다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천서 내용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고, 지원자를 평가할 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에 대해 솔직하게 언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 하십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평가에 도움이 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떤 것인가요?

학교생활기록부는 말 그대로 학교생활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서류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육부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술 내용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학습 경험과 학생 개인별 경험의 기록

서울대학교는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 중에 보여준 학습 노력, 학업수행 과정, 열의, 학업소양, 적성, 학습 방식 및 결과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여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성적에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수치 이외에 수업시간에 순간순간 드러날 것입니다. 교실에서의 수업은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역량을 키울 기회로 삼아 주도적으로 노력하여 소양을 다지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보인 개별적인 노력**을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중점을 두고 파악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는 학생 스스로의 경험과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학업 결과 이외에도 학생 개개인이 어떤 노력과 학업 특징을 보여 왔는지, 특별한 학업소양을 어떤 학습과정에서 어떻게 보여 왔으며 어떤 성장을 보였는지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장황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 개개인이 보인 특징적인 학업소양을 중심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선별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부활동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소양, 개별적인 경험이나 노력이 나타나도록 작성해 주셔야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시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선생님들이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더욱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V

선배들이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나만의 공부비결에서부터 면접 준비과정은 물론 선배들의 진심어린 조언까지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곳에 실린 선배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밑거름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나 열매를 맺을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옮겨진 선배들의 이야기가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선배들의 조언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배들을 위해 본인들의 경험을 공유해주신 새내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고의 공부비결? 기본에 충실하자.



[새내기]

자유전공학부
SOO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성적을 위한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을 알아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각 수업 시간 마다 선생님들께서 학습 내용과 관련된 발표나 보고서 작성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때 귀찮다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누구보다 먼저 손을 들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 중 가장 관심과 흥미가 생기는 부분을 선정하여 많은 자료를 찾아보시고 이를 발표나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리하다 보면, 교과서를 넘어서는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령 저는 한국지리 시간에 '원자력 발전'에 대해 학습한 이후, 탈원전 정책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속의 민주주의'라는 정치학적 개념과 연계 시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극명히 갈리는 원자력 발전의 특성을 토대로, 속의 민주주의와 공론화의 필요성을 도출하는 등 나름의 탐구 과정을 통해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후배님들께서도 이렇게 단순히 **교과서의 지식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나아가는 탐구 자세를 갖추**으로써 한층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내기]

의예과 KOO

저는 **직관적 이해를 학습에 가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수식이나 텍스트로만 받아들이는 것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것들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수학을 공부할 때는 그래프를 통한 문제 상황의 직관적 확인을 중요시했습니다. 공식이나 정리 등을 유도할 때, 직관적으로 그것이 성립함을 확인하고 이를 수식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은 이해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는 텍스트가 말해주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곤 했습니다. 인물 간의 갈등 상황, 색채 이미지 등이 마음속에 떠오르며 작품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내기]

전기정보공학부
KOO

저는 선행학습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으로 갈 때 저는 축구를 했고, 친구들이 문제집을 풀 때 저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수학과 과학에는 흥미가 있었지만, 영어는 항상 평균 이하의 성적을 받았고 그래서 영어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벌써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중학교 공부만 하고 있어 뒤처질까 걱정되었습니다. 실컷 놀다가 공부를 시작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기초가 부족하다보니 처음부터 하나씩 공부하느라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다른 친

구들을 따라잡으려고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선행학습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행학습보다 기초를 단단하게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맞는 공부에 집중하였고, 수학을 한 학기만 예습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니 제가 진학한 고등학교는 과학중점학교여서 과학고를 준비하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수학, 과학을 예습하고 와서 경쟁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저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고, 결국 좋은 성적을 받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것을 보니 그런 생각은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선행학습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배워야 할 내용에 충실하며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새내기]

정치외교학부
○○○

저는 **기본적인 것에 충실히 하는 것이 곧 공부비결**이라 생각합니다. 예습과 복습을 꼼꼼히 하는 것,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는 것이 그것이지요.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습관을 들였던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습은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을 때, 수업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업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것과 조금이라도 아는 상태에서 듣는 것은 확실히 큰 차이가 있죠. 또, 예습 도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선생님께 질문하기도 하는 등, 선생님과 수업시간에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방학 기간에 다음 학기에 배울 교과 내용을 미리 배부 받은 교과서나 시중에 판매하는 자습서, 문제집을 활용해 전체적으로 한 번 훑어본 후, 수업에 들어가기 전날에 다음날 수업에서 다룰 부분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예습을 했습니다.

수업을 들은 그날에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복습하는 것 역시 예습만큼 중요한 듯합니다. 저는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해 교과서나 수업 자료를 읽어 나가면서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복습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자습서, 문제집과 같은 참고자료도 함께 보기도 했었죠. 이러한 복습을 통해서는 예습이나 수업 중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궁금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시험 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평소에 복습을 철저히 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 확실히 효율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났던 게 기억납니다.

공부하면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는 것은 효과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업 중에 다루는 용어들의 정의와 개념을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개념도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용어 정의에서부터 출발하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복잡한 개념을 접하더라도 기계적으로 그냥 대하기보다는 그곳에 담긴 개념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던 것이 공부하면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용어의 정의나 개념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 적도 많았습니다.

[새내기]

인류학과
LOO

공부 비결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찾거나 개발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금방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간절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여러 사람들의 공부법을 찾아보고 닥치는 대로 모두 따라 해봤지만,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지 저에게는 매번 모두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과목 별로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데에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잘 맞는' 공부법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자꾸만 떨어지는 집중력이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어릴 적부터 제가 유난히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발적으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3년 내내 그것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것은 저의 흥미를 이쁨과 동시에 생각보다 엄청난 책임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개념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면서 쉽게 암기할 수 있는 암기법 등을 고찰했고, 친구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혼자서는 미처 훑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멘토와 멘티 공부법이 성적과 우정 모두 잡을 수 있었던 일거양득의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나에게 의미가 있다면 어떤 활동이든 좋다



[새내기]

인문계열
SOO

단순한 하나의 활동보다는 '자유'의 의미를 여러 활동을 통해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려 했던 일련의 과정 자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으로 주체성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보게 된 것은 동아리에서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으로 독서 토론 활동을 기획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공동교육과정 '과제연구' 수업에서 인간의 자유와 실존 문제를 깊이 탐구한 실존주의 사상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자유를 근본으로 하는 현실의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에도 관심이 생겨 수업 시간에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읽은 책에서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과연 가장 나은 방법인지 의문이 생겼고, 그런 의문은 자연스럽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국가의 노력이나 사회 운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입에 도움이 될 것 같은 활동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에 진심으로 참여하며 저도 모르게 얻은 것

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활동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활동과 이어지고 궁금증이 계속해서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여러 활동에 참여했고,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제 나름의 방법으로 궁금증을 끝까지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새내기]

경제학부
LOO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속한 지역에서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¹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열리지 않는 수업을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저는 이를 3년 간 매학기 신청하여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경제학부를 지망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경제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경제'와 '경제수학'을 들었습니다. 이 수업들은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나누는 수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적을 떠나 이 수업들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수업은 제가 경제학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관심을 진로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게 해주었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처럼, 스스로 관심이 있지만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과목이 있다면 공동교육과정이나 K-MOOC 등에서 이를 찾아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수업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해준 값진 경험이었던 때문입니다.

[새내기]

건설환경공학부
ROO

고교 재학 중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2학년 1학기에 진행했던 '진로맞춤 창의연구'입니다. 도서관이 컨테이너였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불편함을 겪어 왔습니다. 저와 친구들의 공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도서관의 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이후, 물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의견이 맞아 단열재를 활용한 실험을 통해 '패시브 하우스의 원리를 활용한 학교 도서관 열 효율성 높이기'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패시브하우스 콘서트'라는 책의 내용을 토대로 단열재와 단열방법을 선정하고 나무상자를 활용해 온도를 측정해 학교 도서관의 열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단열재와 단열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학교에 직접 건의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자세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건의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사소한 문제점도 깊이 있게 탐구하며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하는 공학자의 도전적인 실험정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비용이었는데 대학 진학 후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 심화적인 공부를 한 후 단열재와 단열방법을 효율적으로 건물들의 열 에너지 손실 문제에 적용시키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까지 도시공학과 관련해서는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교라는 아주 작은 사회에 도시공학적인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을 느꼈고, 공학자로서의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새내기]
의예과 KOO

제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활동은 의외지만, 3학년 체육대회입니다. 예년과 달리 3학년 때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난 날부터 응원가를 준비하고, 입장식을 준비하고 종목별 연습을 하는 등 전교생이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3학년으로서 1, 2, 3학년 모두를 통합하여 준비하는 주도적인 입장을 맡은 상태였기 때문에 책임감도, 부담도 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웠습니다. 겨울방학부터 '고 3'이라는 스트레스를 느끼며, 가장 중요하다는 3학년 학기 중간고사를 만족스럽게 마치고 친구들과, 후배들과 한 팀으로서 준비했던 그 시간은 지금 생각해도 행복합니다. 3년 내내 선수로 뛰었던 종목에서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하고, 마지막 골을 넣으면서 우승했던 순간은 아직까지 가끔 꿈에 나옵니다.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었고, 힘들 때마다 마지막 경기를 떠올리면서 웃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응원단장인 저의 장단에 맞춰 입장하고, 종합우승을 해서 함께 함성 지르던 모든 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너는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한다.'였습니다. 이 말은 '놀면서 공부한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저는 체육대회나 축제와 같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있다면 그때만큼은 맘껏 즐기고, 재충전할 기회로 삼고,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내기]
경영학과
LOO

저는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하고자 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실 3학년 때 학생회장으로서의 직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고 실제로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지지해준 만큼 많은 사람이 말리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후회할 일이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3학년 첫 중간고사를 치르고 후회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생회 활동에 시간과 정신을 많이 쏟느라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꼈든 제가 욕심내서 선택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말 힘들게 노력했던 시간들은 제 선택에 책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고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제가 많은 배움을 얻었던 것은 '학생회' 활동이지만,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도 필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에게 어떤 것이 의미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심화했으며 무엇을 깨달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업 외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곰곰이 고민해보세요. 그것이 주체 탐구 활동이든, 동아리 활동이든, 학생회 활동이든, 그 활동의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괜찮을 것입니다.

전공 및 진로선택을 위한 고민



[새내기]

윤리교육과
LOO

저는 원래 초등학교 교사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핀란드, 독일과 같은 교육 강국의 교육법, 4차 산업혁명과 교육과의 밀접한 연관성 등 초등학생에게 ‘어떤 수업 방식이 적절하며, 어떤 도구를 활용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탐구 활동에 치중했습니다. 여러 활동을 수행하며 배운 점은, 학교가 여전히 50년 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지역 아동센터에 교육 봉사를 다녔는데, 아동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교육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소외 계층의 실상과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는 교육정책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생각에, 교사로서 학생 개개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기보다는 교육정책연구원이 되어 정책 연구와 입안에 참여하고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고, 사범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육정책을 연구하려면 ‘교육학’을 전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저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경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느꼈기에 윤리교육과를 선택하였습니다. ‘탁상공론’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보다 현장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저는 중등학교 교사가 되어 실상을 파악하는 시간을 보낸 후, 정책연구원의 길을 다시 걷자는 생각을 했고 현재 재학 중인 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내기]

경제학부
LOO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저에게 뚜렷한 진로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잘한다는 말을 들어왔기에 수학과에 가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제가 경제학부에 입학하였듯 고등학교 생활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보통 학년 말에 생활기록부에 진로희망을 기재하는데, 저희 학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진로희망에 무엇을 써야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학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저의 관심사와 학문적 취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칭찬과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깨달은 저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저는 사회과학 계열로 진로를 정하였습니다. 자연과학보다는 경제, 정치 등을 공부하는 것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학년말, 이과에서 문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름대로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대한 결정이었으며 동시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결정에 확신이 있었고, 제 선택을 고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더 구체적인 진로를 탐색하며, 결론적으로는 경제학에 큰 매력을 느껴 경제학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후배님들

도 자신의 학문적 취향과 관심사를 생각해보며, 정말 내가 공부하며 행복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내기]

건설환경공학부 ROO

저는 고등학교를 입학했을 때부터 도시공학자라는 꿈을 명확히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과라는 것만 정해놓은 채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큰 범위에서 찾아가고자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직접 접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좁은 공간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보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그 분들이 살아가시는 공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도시공학 내에는 도시계획, 단지설계,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하위 분야가 존재하는데 봉사 경험을 계기로 저는 그 중에서도 도시재생 분야에서 일하며 주로 낙후된 지역이나 소외된 이웃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주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진로를 구체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저의 최종 목표는 저소득층 계층 거주지의 냉방, 난방 효과 및 환기장치 개선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골목 환경을 개선시켜 범죄 발생률을 줄이고 쇠퇴 상권을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넓은 범위까지의 도시재생 활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진로를 설정하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처음에 도시공학이라는 큰 틀을 설정하고 보니 흔하지 않은 학문이어서 준비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많지 않았고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끔씩은 성적에 맞춰 다른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꿈꾸고 행복할 미래에 대해서 다시 상상해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정확했지만, 다른 학과에 진학했을 때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었을 뿐더러 대학 공부에 있어서도 적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전공이나 진로 선택에 있어서는 타인의 시선이나 의식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같은 학교 이과 친구들 중에서 건설환경공학부를 희망하는 학생은 저 하나였지만 오히려 저는 이를 저만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저는 끝까지 꾸준히 제가 생각해놓은 저만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최종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줄 수 있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고등학교 3년 내내 노력했고 마침내 그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새내기]

농경제사회학부 LOO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넓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로 선택에 많은 고민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이때 자유전공학부를 지망할 수도 있었지만,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학문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MBTI와 같은 성격 검사를 하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고등학교에 있는 진로상담실을 이용하며 학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연계전공

이나 복수전공 등을 알아보아야 할까?’ 등의 생각을 하면서 겨울방학이 가까워서 진로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를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2학년이 되어서 지역정보전공과 자원경제학전공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도 전공을 선택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회의 약자에게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싶었고 현재 위기에 처한 농업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목표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지역균형 개발 정책에 대해서 깊게 배우고 싶다는 흥미가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국민총행복과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책을 읽으며 진로를 확실하게 굳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농경제사회학입문’이라는 전공을 소개하는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데 행동경제학, 식품경제학, 지역경제학 등 주류경제학 외의 다양한 경제학을 접하는 환경이라는 것에 만족스럽습니다.

[새내기]

생명과학부
LOO

생명과학 분야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은 중학생 때부터였을 것입니다. 어릴 때는 단순히 ‘직업’을 진로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책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이 즐거워서 단순히 과학자를 진로로 처음 정하게 됐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분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는데, 과학을 배우는 것이 즐겁지만 그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와 잘하는 분야는 무엇일지, 적성과 흥미에 대해 탐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창 바이러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바이러스 백신과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화학과 생명과학 진로의 큰 윤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성취’에 대해 목표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백신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며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봤었습니다. 그러던 중 독서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제 진로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인류와 원숭이에게 공통 조상이 있다.’ 정도의 진화생물학 지식수준만 가지고 있었던 제가 진화와 관련된 다양한 도서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문득 진화생물학자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학함에 따라 제 학업적 성취 수준도 상승했고, 그로 인해 알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생화학, 생물물리학, 수리생물학, 과학철학, 식물생리학 등 제 앞에는 신세계가 놓여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제 분야를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진화 모델을 설정하고, 이론적 검증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진화적 기원을 밝히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진로가 끊임없이 바뀌어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현재 설정한 진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성취하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주저하지 않고 생명과학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의 진로를 설정하기까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스스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진로를 선택한 계기는 바로 **수없이 많이 던졌던 ‘고민’**입니다.

면접 준비, 함께하면 더욱 좋다



● 서류기반 면접

[새내기]

자유전공학부
SOO

– 면접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다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학원을 다니기 보다는 면접을 준비하는 주변 친구들과 스터디를 통해 함께 모의 면접을 하며 준비해나가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저 역시도 스터디를 통해 얻은 것이 많습니다. 특히 3년 간 같은 학교를 다니며 서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의 질문이 면접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태도'와 '고민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밝고 큰 목소리, 여유로운 아이컨택을 통해 적극적이고 똑 부러지는 인상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열심히 참여했던 활동 또는 주제와 관련한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피상적이고 단순한 답이 아니라, 정말로 오랫동안 숙고해서 찾아낸 나만의 답변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고민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청산유수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잘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굳이 막힘없이 이야기해야 한다면 그 답변 내용의 깊이가 뒷받침되었을 때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서울대학교 면접에서 '독서'는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읽은 책, 적어도 자기소개서에 쓴 책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해야 하고, 굳이 직접적으로 책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답변 속에 자신이 읽었던 책을 녹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조선 왕조에 대해 읽었던 책의 내용을 활용해 답변해 교수님들께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내기]

인문계열
SOO

– 저는 서류기반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 준비는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준비했습니다. 서류기반 면접이니만큼 제 고등학교 생활과 저라는 사람을 면접관님들께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천천히 떠올리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고 싶은지, 대학교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등을 가장 먼저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생활기록부를 여러 번 읽어보며 모든 내용을 숙지하려 했습니다. 물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활동은 모두 제가 한 활동이기에 시간만 충분하다면 느낀 점이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지만, 실제 면접장에서는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후

에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모의 면접을 여러 차례 했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면접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후에는 제 모습을 촬영해가며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발표나 말하기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면접은 꽤 긴장되는 환경일 것 같았기에, 최대한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며 환경에 익숙해지려 했습니다.

면접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는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계속해서 저를 다독였습니다. 면접장으로 들어가니 면접관들께서 환한 미소로 맞이해주셔서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면접에서는 다른 대학교 면접에 비해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평소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면접 전에는 최대한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내기]

컴퓨터공학부
KOO

가장 먼저, 저는 모든 면접을 학교에서만 준비했고,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을 다녀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NO'라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면접 학원에서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역량이 아닙니다. 저는 학교에서 토론동아리 및 대회, 멘토멘티 활동 등 지식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활동에 참가했는데, 그런 경험이 면접에서 떨지 않고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역량을 키워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면접 준비'를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하나하나가 면접을 위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면접 준비를 할 때는 선생님과의 대화, 혹은 토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학과 과학 분야의 선생님들, 인문학 분야의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제가 놓치고 있던 점들까지 다방면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면접 준비는 한 사람과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지원했고, 서류기반 면접을 보았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3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꼼꼼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건 하나하나를 돌아보지 말고 내가 이 활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변화된 점이 무엇인지, 이후에 추가로 연결되는 활동은 없는지와 같이,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제시문 기반 면접

[새내기]

응용생물화학부
OOO

면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는 면접에서 요구하는 과목이 학부마다 다르므로,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에 올라온 자료에서 내가 지원할 학부가 요구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과목은 화학이었고, 수능에서 화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하는

동시에 학교에서 수업 받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꾸준히 참여한 활동들을 정리하고 읽은 책들을 요약해두었는데, 이를 토대로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을 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면접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1단계 전형에 합격한 직후로, 이때부터는 화학2의 개념 위주로 공부하면서 3~4일에 1번 정도 화학1의 개념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화학2는 수능 준비를 하지 않아 수업 시간 외에는 공부할 시간이 적었기에 잊어버린 부분도 많고, 개념적 이해도도 떨어진다고 생각해 개념적인 부분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개념 위주로 여러 번 반복하여 학습한 뒤 면접일 1~2주 전부터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면접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이때 기출문제 풀이도 여러 번 반복하여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문제를 읽고 문제에 사용된 개념과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풀이를 그려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하게 풀이과정을 쓰고, 계산해 답까지 도출하면서 채점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때 틀린 문제들이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문제들에 관련된 개념은 다시 복습하고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며 틀린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오답 정리를 끝낸 후에도 이따금 문제를 보고 내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검토하며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면접을 걱정하고 있다면, 면접 공부는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면접을 위해 학원에 다니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공부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학교 선생님께 여쭙보면서 공부했습니다. 또한, 문제 자체도 흔히 수능의 킬러 문제와 같이 계산이 어려운 문제보다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준비에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 문제를 다 풀지 못했거나 틀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못 풀 문제가 있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새내기]

농경제사회학부
KOO

— 사실 공부 외에 후배들이 가장 걱정하는 측면은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보는 사회과학 지문과 손도 못 대는 수학 문제’, 많은 후배들이 서울대학교 제시문 면접에 가지는 걱정일 것입니다. 사실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과학 지문은 이해하기 힘들고, 수학 문제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원한 학과는 사회과학과 수학 문제를 모두 풀어야 했기에 처음에는 참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딱히 새롭게 공부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제를 풀면 풀수록 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한 답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뭘까?’, ‘반대 입장이라면 어떤 말을 할까?’,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 면접을 준비한 최고의 장소는 당연히 학교**였습니다. 모든 친구가 저만을 위한 면접관이 되어 주었고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 연습할 때는 실제 면접 때 보다 더 긴장했습니다. 사실 교수님들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시기에 오히려 실전에서는 많이 긴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은 다 해야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새내기]

의예과 KOO

면접 대비는 어쩌면 공부보다 더 많은 고민과 걱정이었습니다. 서울대 의예과 일반전형의 경우 다중미니면접(MMI)으로 면접만 60분 동안 보고 면접 내용 역시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면접만큼은 서울에서 학원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들과 선배, 그리고 교육청 선생님들 덕분에 충분히 혼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방학과 학기 중, 수능 이후 학교에서 하는 모든 모의면접에 참여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서울대 일반면접과 동일한 형식의 문제를 만들 수는 없지만, 최대한 기출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제가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다중미니면접은 다양한 종류의 상황 이외에도 생활기록부와 자소서에 관한 방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면접 대비를 위한 모의 면접 역시 매우 꼼꼼히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제 생활기록부와 자소서를 읽으며 제 나름대로 예상 질문을 뽑고 대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면접관 역할을 해주시기도 했고,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공간시간을 기꺼이 제게 내어 주셨습니다. 특히 3년간 작성한 보고서와 제출했던 수행평가 기록지, 독서감상문, 분석보고서 등을 모두 출력해서 다시 읽고 복기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맘에 드는 부분은 촬영해두곤 하는 데 이러한 습관이 책의 내용을 떠올리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육청 진로진학담당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교육청 모의면접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면접관님께서 공식적인 모의면접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전화로 약속을 잡으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하였고 실제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지적해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MMI의 특징은 무엇보다 방이 여러 개라는 점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5개의 방은 각각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에겐 두 번째 방이지만, 그 방의 면접관들은 저를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저의 이전 면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 방의 면접을 빨리 잊고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면접을 보고 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망했다, 못했다'일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끝나자마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항상 남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과를 걱정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와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새내기]

정치외교학부
○○○

과목별로 편하게 다가가 질문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셨던 게 저에게는 큰 힘이
자 도움이었습니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필요한 추가 정보
도 얻을 수 있어서 교과 내용을 더 깊게 탐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과목별로 공부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내신과
수능을 공부하면서 감이 전혀 잡히지 않을 때, 선생님께 다가가 제 고민을 털어놓으면 선생
님께서는 친절하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면서 공부하는 방향을 잡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선생
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학업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내면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발표나 글쓰기 활동에서 선생님께서 주신 피드백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
업 중 발표를 하고 나서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질문은 확산적 사고력을 키우고 말하기 실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피드백을 통해 제가 스스로 알지 못했던 능력과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피드백을 통해서도 그 교과목을 공부할 때 필
요한 생각의 틀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글쓰기 활동에서도 피드백을 통해 제가 글 쓰는 방향성
을 잡아낼 수 있었으며, 저만의 문체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피
드백이 있었기에 제가 썼던 보고서에 대한 반론들을 생각해보면서 논리적으로 탄탄한 글을 쓸
수 있었고, 긴 글을 쓸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새내기]

인문계열
○○○

저는 진리에 다가가는 과정, 학업의 과정에서 '지(智)'가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이따금 했습니다. 따라서 '지의 나눔'을 통한 학업의 완성이 절실했고, 이를 위해
'지적 공동체'를 결성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과 학교의 도움을 양껏 받았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제공한 '또래 학습 멘토 활동'이 저와 또래 친구들의 학업적 신장에 큰 도움이 되
었습니다. 부족한 지식을 학생들끼리 채우는 지적 나눔의 장인 또래 학습 멘토 활동을 통해 멘
토로 활동하며 제 교과 지식을 멘티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최선의 배움이었습
니다. 멘토 활동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었고, 혼자 공부하는 도중에 떠
오른 물음을 멘티와 공유하며 제 사유의 깊이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3학년 담임 선생님의 도움
으로 학급 내 멘토 활동을 진행한 것도 학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활동에서는 멘토와 멘티
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멘토이자 멘티로 활동하였습니다. 단순히 교과 지식에 머물지 않고
관련 도서를 추천하고 나누는 등,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학업 증진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새내기]

생명과학부
LOO

학업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것도 중요했지만, 학업에 있어 제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활동은 기숙사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임성도 없고 처음 본 사람한테 말도 잘 걸지 못하는 성격인 저는 재학한 중학교에서 혼자 진학했기 때문에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환경이어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제가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와 대화를 시도해보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 더는 어색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지내던 학교생활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뛰어난 친구들과 학문적 교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던 것이 제가 성장하는 가장 큰 자양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와 교류하며 단순히 공식만 보던 학습 방법에서 수학적 정의가 가지는 의미나, 공식이 특정 상황에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등 수학적 원리를 중심으로 탐구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학에 관심이 많던 친구와는 학문적인 교류뿐 아니라 사회 현상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의견을 공유하며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학도를 꿈꾸던 친구와는 그저 기숙사 생활을 조금이나마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선을 짜고, 도구를 사용하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실생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것을 추구하던 제가 '활용방안'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알던 것을 남들과 나누면서 결과적으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상생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청하고, 남의 도움에 가까이 응할 수 있는 자세를 익혀나가면서 제 의견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아집을 부리지 않고, 성숙하게 의견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내기]

전기정보공학부
KOO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업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듣는 수업과 학교에서 실시한 활동들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지방에 살아 유명 학원가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 학업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학교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도움받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어려운 수학문제가 있으면 학교 수학선생님과 함께 풀어보기도 하고, 영어 지문이 해석이 안되면 학교 영어선생님과 함께 지문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전문학 작품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학교 국어선생님과 함께 작품을 읽어보기도 하고, 화학, 지구과학, 물리와 같은 탐구과목들도 잘 안풀리거나, 답지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학교선생님과 함께 고민도 하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은 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시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하면 선생님들도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내색 하나도 없이 항상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얻음으로써 좀 더 문제해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내기]

농경제사회학부
K00

제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곳은 당연히게도 '학교'입니다. 지방 일반고, 기숙사 3년, 과외는커녕 학원도 가지 못했고 제가 믿을 곳은 오로지 학교뿐이었습니다. **모든 공부는 학교에서 이루어졌고 당연히 모두 학교 수업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선생님들의 도움 아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자료들과 지루하지 말라고 해주시는 많은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소중했습니다. '학생이기에 당연히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이 당연한 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시는 내신 시험은 물론이며 수능 시험까지도 선생님들께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라는 점입니다. 모르는 게 있다면 도움을 받아야 하고 고민이 있다면 상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학교를 의지하는 것이 공부하는 학생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도 못한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해 주신 선생님도 계셨고 수많은 자료를 선별하여 조금이라도 좋은 자료로 공부하라고 배려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문학 작품 하나를 공부할 때 역사적 배경이나 관련 영화, 현재의 사회 환경을 엮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모두를 생각하여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게 노력해주신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서울대에 합격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6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고등학교 생활을 즐기자



[새내기]

정치외교학부
M00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해 주고 싶은 말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좋은 결과로 마무리 할 수 있어 매우 감사했지만, 저희 학교는 내신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뛰어난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는 왜 저 친구처럼 논리정연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 '열심히 썼는데 이번에도 독후감 상은 못 탔네.' 등등의 생각들로 고등학교 3년 동안 수십 번도 넘게 친구들과 저 자신을 비교하고 깎아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가진 장점은 보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바심을 냈던 것이 많이 후회가 됩니다. 내가 독후감에서는 임팩트가 없더라도 탐구활동에서는 두각을 나타낸다면, 그 부분을 부각시켜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독후감을 잘 쓰는 친구와는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고등학교 3년을 여러분들의 색깔을 찾고,

그 부분을 개발시켜 나가는 여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토닥여 주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새내기]

기계항공공학부
NOO

—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을 찾는다면, 공부할 때 상상 이상의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랜 시간 공부하더라도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심분야를 공부하는 그것만큼의 행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자신이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다양한 학문을 경험해 볼 좋은 기회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분야가 자신과 잘 맞는지를, 여러 가지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하면서 차차 알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으며 지금은 어떤 목표를 가졌는지도 알아보는 등 생각보다 많은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뭔지 탐색하는 과정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무작정 인터넷에 '서울대 추천도서'를 검색해서 읽는 것보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다가 나온 궁금한 점들을 검색하다가 나오는 책들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 책이 인기가 없다고 한들, 본인이 그 책을 읽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느끼기만 하면 그 책은 다른 어떤 '추천도서'보다도 좋은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새내기]

자유전공학부
SOO

—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많은 후배님들께서 느끼고 계시는 가장 큰 감정이 다름 아닌 '막막함'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전형보다도 교과 성적에서 교과 외 활동에 이르기까지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 방향을 잡기 어려웠고, 정답이 없는 전형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하다보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년을 얼마나 알차게, 진심을 다해서 보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고등학교 생활을 '입시'라는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체로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말이고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시절을 보내면서 입시로 점철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내 앞에 주어진 과제에 최선을 다해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는 일, 동아리 등의 교과 외 활동을 입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보다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여서 즐겁게 참여 하는 일, 그런 도중에도 여러 친구, 선생님 등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는 일... 저도 고등학교 3년 생활을 오로지 입시 하나만 보고 달려오지는 않았기에, 지금 와서 돌아봤을 때 힘들기도 했지만 그 어떤 시기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서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낭만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배로서 진심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생활의 목적이 대학입시만은 절대로 아니니까요.**

[새내기]

인문계열
SOO

-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방법에서든, 자기소개서 작성에서든, 학교생활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자기소개서 4번에 어려운 책을 적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문학, 전공 분야, 다른 분야의 책 한 권씩을 적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아주 쉬운 책이더라도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준 책을 자기소개서에 적었습니다. 솔직한 여러분의 이야기와 고민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여름, 학교 자습실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책자 속 선배들의 합격 수기를 읽으며 울컥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저도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잠과 싸우며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공부했던 시간은 다시 생각해도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치열하게 살았던 만큼 힘들었던 기억이든, 행복했던 기억이든, 고등학교에서 채워나간 시간은 제게 참 소중한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저마다의 고민으로 힘도 들고 걱정도 많이 들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달래며 꾸준히, 끝까지, 담담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걸어오고 계실 수많은 길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해온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서울대학교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간혹 특별한 재능과 경력이 있어야만 합격할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재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은 내신 성적 등급 점수가 높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서울대학교의 학생부종합평가는 **학교 안에서 꾸준한 성취**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학생이라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학교 안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보여주기 식의 활동이 아니라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부, 인성을 길러주는 모듬 활동**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깊이 있는 지적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보다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재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과 과제**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활동 안에서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업 외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과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서울대학교의 전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묻습니다

Q 수시모집에서 서류평가 방법이 전형마다 다른가요?

A 서울대학교의 수시모집은 지역균형선발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이 있습니다. 이 세 전형은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이 서류 외에 평가에 반영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세 전형의 차이점은 지원 자격에 있으며, 서류평가 방법, 기준은 같습니다.

Q 수시모집에서 여러 개의 전형에 복수 지원할 수 있나요?

A 우리 대학의 수시모집에 지원할 경우 두 가지 전형에 동시(복수) 지원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모집단위에도 동시(복수)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 혹은 지역균형선발전형과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등에 함께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개 전형의 한 개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교과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할 수 없나요?

A 수시모집 지원 자격과 교과이수기준 충족 여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교과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지원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과이수기준은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교육과정 내에서 폭넓은 교과를 이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아 기준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가능한 지원 시점 이전까지 고른 교과목을 이수하여 고른 학업소양을 갖추기를 권장합니다.

Q 지역균형선발전형은 각 학교마다 계열별 1명씩 지원해야 하나요?

A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졸업예정자 2명이 지원할 수 있으며 추천 자격이나 조건에 대해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천 권한은 소속 고등학교장에 있으며, 각 학교를 대표할 만한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는 모집단위는 정시모집에서는 전혀 선발하지 않나요?



서울대학교 신입생이 되고자 준비하는 학생은 전형별 선발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위에 따라 수시모집만 실시하거나 일부 전형에서만 학생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는 모집단위의 경우 정시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시모집에서 합격자 총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음악대학을 제외하고 미충원 인원을 정시모집에서 선발합니다.



서류평가에서는 교과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나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기재 내용,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교과 성적순으로 선발하지 않으며 성적을 산출하는 공식이나 보정점수를 주는 방식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꼭 향상되어야만 좋은 평가를 받나요?



정해진 모습은 없습니다. 성적이 향상되면 떨어지는 것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따른 동일과목 수강자가 적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평가합니다. 즉, 선택한 과목의 수준과 수강자 구성, 인원으로 인하여 단순히 등급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오히려 좋은 성적을 받는 데 유리한 과목만 이수하여 결과적으로 수치만 좋게 받으려 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수인원으로 구성된 과목을 이수해서 석차등급이 다소 낮아지면 평가에 불리한가요?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과성적을 평가할 때 단순히 등급 수치만 고려하여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과 함께 수강한 학생들의 구성,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므로 소수 학생이 이수한 과목 때문에 등급이 낮아졌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이 자신의 진학 목표를 고려하여 소수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노력을 보일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집단위별로 반영 교과가 정해져 있나요?



모집단위와 상관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교과 성적은 평가에 반영됩니다.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교과성취도(내신)의 3년간 이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내용, 그 과목에서 성취한 등급, 원점수, 수강한 학생들의 평균, 표준편차,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공부한 내용과 그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에서 충실히 공부하여 모든 교과에서 고르게 우수한 면모를 지닌 학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Q 동아리활동은 지원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와 일치해야 유리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적체험활동 내에서의 동아리활동은 학생의 소양을 넓히는 기회입니다. 학습동아리, 체육동아리, 예술동아리, 봉사동아리, 여가동아리 등 지원자가 선택한 동아리의 종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활동을 통해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이 지원 모집단위와 일치해야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Q 봉사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A 봉사활동의 형식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배경, 과정 등 학생이 경험한 봉사활동의 내용을 고려합니다. 아울러 봉사활동은 종합평가의 일부이며, 무조건 많이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Q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했다면 자기소개서에 쓸 수 없나요?

A 자기소개서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자가 학습하고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나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은 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 이외에는 지원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 더 알고 싶어서 한 독서활동, 방송 강좌 수강 등 학습 노력의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학습 경험은 일차적으로는 학교 내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를 소홀히 한 채 혼자 공부한 기록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 각 제출서류마다 배점이 정해져 있고, 가장 높은 배점은 자기소개서 아닌가요?

A 서류별 배점은 없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서류마다 정해진 반영 비율은 없습니다.

Q 추천서가 당락을 좌우하나요?

A 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지원자의 특성을 알고자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지원자를 관찰한 결과나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인지한 사실 등을 추천인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천서는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됩니다.



수시모집에 지원하는데 반드시 수능을 응시해야 하나요?



지역균형선발전형, 수시모집 일반전형 중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지원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함으로 수능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 때 서울대학교가 정한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영역기준'을 지켜야 함으로 반드시 모집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시모집 일반전형 전 모집단위(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제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수능 응시영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수능에 응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서류평가에서 수능 점수가 좋을수록 유리한가요?



수시모집에서 수능 점수는 최저학력기준으로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서류평가, 면접, 실기평가(미술대학, 음악대학)를 통해 합격 대상자가 된 학생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해야만 최종 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 등급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기준 등급보다 높은 수능 점수의 획득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2019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 증빙서류를 폐지하였습니다. 관련 서류 제출을 희망하시더라도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지원자의 경우 기준과 동일하게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서류에 한하여 기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시모집 일반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 지역균형선발전형과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의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수시모집 일반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는 단순 정답, 단편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닌 교과 지식과 기본개념 이해를 토대로 학생의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깊이 있게 사고할 줄 알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연습은 학교 수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문제풀이나 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독서, 글쓰기, 토론, 발표, 과제 수행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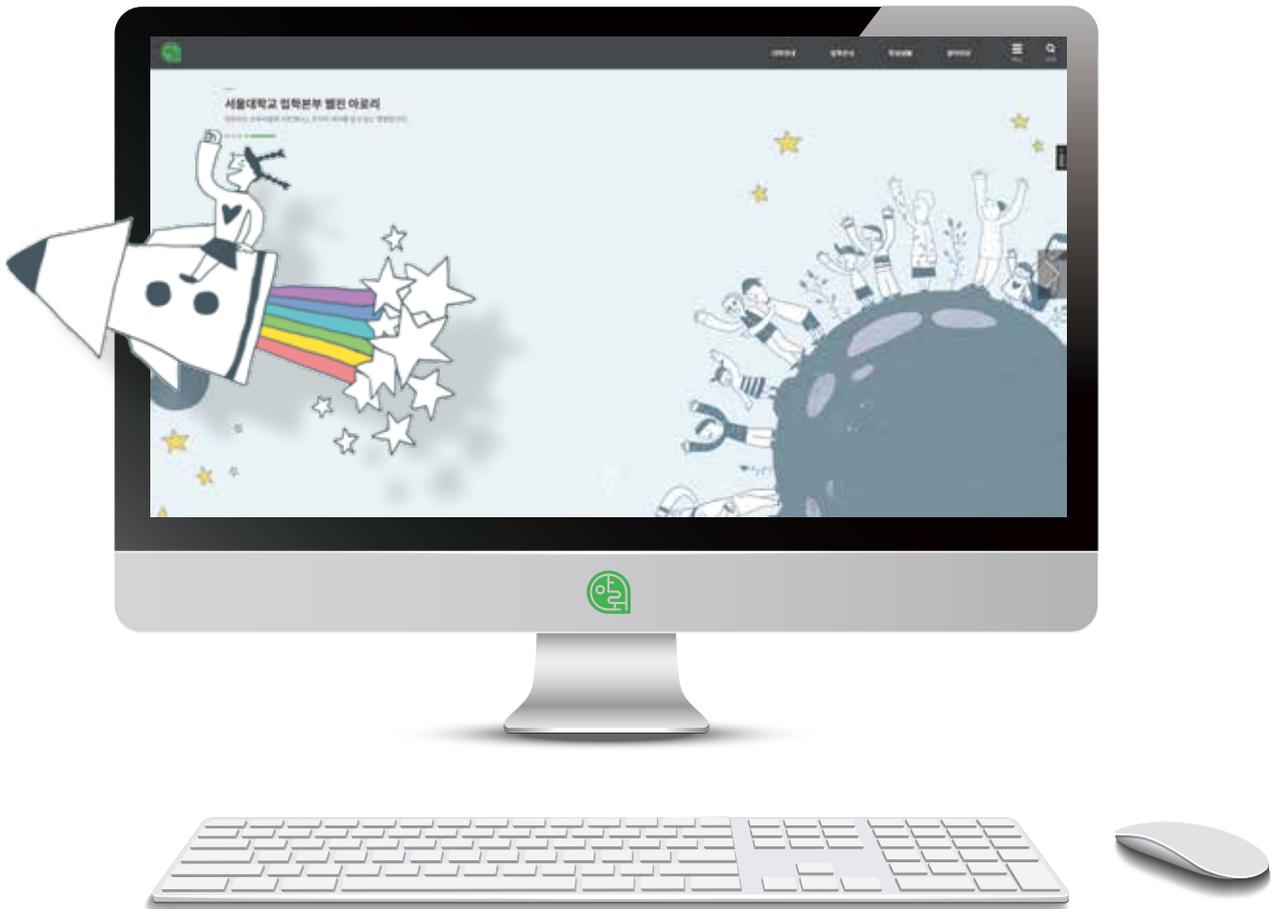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과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면접은 제출서류를 내용을 토대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확인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면접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웹진「아로리」에는 기출 제시문과 면접 우수자 인터뷰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아로리 사용 설명서

「아로리」- 입학본부 웹진(<http://snuarori.snu.ac.kr>)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된 정보를 폭넓고 다양하게 전달하여 서울대학교 입학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웹진입니다. '아로리'란 말의 뜻이 친구, 지인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친근하고 손쉽게 아로리를 이용하여 입학정보, 대학생활 등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 |
|----------|----------|---|
| 대학 안내 | 관악로 1번지 | 서울대학교 소개, 서울대가 추구하는 가치, 서울대학교의 인재상을 엿볼 수 있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 | 추억의 서울대 |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의 이야기를 인터뷰 기사로 담아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
| 입학 안내 | 전형안내 | 입학전형 및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서울대 입학생 중 면접 우수자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파릇파릇 서울대 | 서울대 신입생의 인터뷰 내용으로 고등학교 생활담과 현재 대학 생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
| | 자료창고 |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기출자료 뿐 아니라 입학본부에서 발간한 각종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 학생 생활 | 서울대 사용법 | 예비 서울대 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교통, 기숙사, 장학금, 도서관 이용법, 식당, 학생증 등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아이템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 전공 톺보기 | 전공 정보를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인터뷰 형식으로 담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공소개 동영상을 함께 탑재하고 있습니다. |
| | 방과 후 하교? | 서울대학교 동아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동아리 연합회에 소속된 동아리는 물론 학과 동아리, 단과대학 동아리 등의 이야기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
| 참여 마당 | 나도 입학사정관 | 서울대학교 합격생의 서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3개 모집단위 각 3명씩 총 9명의 합격자 서류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
| | 우리교실 이렇게 | 교실 수업 개선 사례를 비롯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
| | 이슈이슈! | 우리 교육계의 쟁점 사안에 대해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
| | 입학본부에게 | 입학본부에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교류하는 공간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및 입학전형 전반에 발전적인 의견을 공유하는 곳으로 snuarori@snu.ac.kr로 연중 상시 의견을 받아 채택된 의견이 게재됩니다. |



SEOUL
NATIONAL
UNIVERSITY

VERITAS LUX MEA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50동 4층 입학본부 (우)08826

전화 _ 02.880.5022 / 02.880.6974~6

팩스 _ 02.873.5021

홈페이지

<http://admission.snu.ac.kr>



webzine 아로리

<http://snuarori.snu.ac.kr>

